



울던 KIA 환호

'극과 극' 시즌

광주연고 프로구단

웃던 상무 허탈



상반된 한 해를 보낸 KIA 타이거즈와 광주 상무가 '가을 고민'에 빠졌다.

올 시즌 KIA와 상무는 꼴찌에서 1위, 1위에서 6강 탈락 위기라는 상반된 행보를 했다. 엇갈린 가을이 됐지만 두 팀은 신속 경기장 견립과 정식 프로축구단 창단이라는 문제를 놓고 똑같이 고민에 빠졌다.

KIA는 두산과의 개막전부터 내리 연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시즌을 시작했다. 팬들은 '잔인한 4월'을 보내며 4강 문턱에서 주저 않아야 했던 2008년의 악몽을 떠올려야 했다.

반면 상무는 두 골을 연달아 터트린 '신병' 최성국의 활약속에 대전을 3-0으로 제압하며 2009시즌을

시즌 초반 꼴찌서 리그 우승

출발했다. 상무는 2라운드 제주 원정에서 0-1로 패배를 기록하고 돌아왔지만, 3라운드 홈경기에서 서울을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5라운드에서 인천을 1-0으로 제압하며 K-리그 참가 이후 처음으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최하위와 1위. 상무는 KIA의 부진 속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최고의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양팀의 입장은 극적으로 뒤바뀌었다. 꾸준하게 승을 쌓아온 KIA는 후반기 첫 경

기였던 7월28일 롯데와의 대결에서 12-2의 대승을 거두고 단독 2위까지 치고 올랐다. 13번째 홈 구장 매진을 기록했던 8월2일에는 삼성을 4-3, 1점차로 누르고 2천516일만에 1위에 오르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했다. 뜨거운 8월을 보내며 12년만의 정규시즌 우승의 기쁨도 만끽했다.

1위 행진을 하던 상무의 기세는 여름 더위 함께 사그라졌다. 7월 4일 전북에 2-3으로 역전패를 당하며 홈 무패행진을 마감한 상무는 최근 10경기에서 1무9

승승장구하다 9위 곤두박질

패로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순위는 1위에서 9위까지 곤두박질쳤다.

한가위를 앞둔 양 팀의 분위기는 당연히 극과 극이다. KIA 선수단은 승자의 여유를 누리며 롯데와 두산의 준플레이오프 대결을 지켜보게 됐다.

6강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몰린 상무는 추석 다음날인 10월4일 울산 찾자 필사적인 승점 사냥을 해야만 한다. 설상가상 상무는 시즌이 끝나기도 전인 내달 22일 주축선수들이 대거 제대를 하게 되면

서 남은 길이 험난하기만 하다. 광주를 연고로 한 정식 축구단이 원래 약속대로 창단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프로팀이 된 상무의 한계때문에 2009시즌이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

12년만의 한국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KIA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V10'에 도전하는 1위 팀의 위업에 맞지 않는 1만3천400석 규모의 비좁고 낡은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축제'를 치러야 하는 만큼 1위를 하고도 심기가 불편하다.

극과 극의 한 해를 보낸 두 팀이 광주시의 약속을 기다리며 애타는 가을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9일 화순 하나은행 체육관에서 열린 2009 삼성화재배 대학배구 추계대회 결승전 성균관대와 경기대의 경기. 이날 우승의 주역 성균관대 서재덕이 2세트에서 경기대의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화순=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서재덕 나홀로 32득점 ... 역전우승 일궜다

<광주전자공고 출신>

대학추계배구 성균관대, 경기대에 3대 2승

성균관대가 무서운 뒷심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대학배구 정상에 우뚝 섰다.

성균관대는 29일 화순하나은행체육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09 삼성화재배 전국대학배구 추계대회 결승전에서 서재덕의 맹활약에 힘입어 경기대를 3-2(23-25, 26-28, 25-22, 25-17, 15-10)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성균관대는 지난 하계대회 우승에 이어 올시즌 2관왕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 광주전자공고 출신 서재덕(2년·195cm·88kg)은 매 세트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며 32득점, 팀 우승의 주역이 되었다.

이날 성균관대는 초반 1·2세트를 내주며 버랑 끝까지 몰렸으나 서재덕·박주형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전진용의 결정적인 블로킹 등 수비에서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반격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의 승부처는 5세트. 4세트까지 대접전을 펼치며 체력 소모가 극심했던 양팀은 막판 주포들의 공격에서 명망이 엇갈렸다.

초반 매서운 공격을 펼쳤던 경기대 강영준은 체력저하로 상대 블로킹에 공격이 막혀 실점한 반면 성균관대 서재덕은 박주형·권혁모 등과 함께 활발한 좌우공격으로 득점행진을 이어갔다.

5세트 중반 12-10으로 박빙의 리드를 지켜가던 성균관대는 전진용의 결정적인 연속

블로킹과 마지막 서재덕의 끝내기 공격으로 더이상 상대에게 반격 기회를 주지않고 승부를 결정 지었다.

이날 우승으로 성균관대는 지난 춘계대회 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움했다.

반면 지난 춘계대회·종별선수권 우승팀 경기대는 이날 패배로 시즌 3관왕의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또한 경기대 강영준은 혼자서 30득점하며 투혼을 발휘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잃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피는 못숙여... 조윤지 시즌 2승

스포츠 스타 조창수·조혜정씨 딸 KLPGA 2부 드림투어 우승

조윤지(18·캘러웨이)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부 투어인 드림투어 13차전에서 우승하며 시즌 두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야구인 조창수(60)씨와 배우인 조혜정(56)씨의 딸이자 정규투어에서 뛰고 있는 조은희(27)의 친동생이기도 한 조윤지는

29일 전남 무안골프장(파72·6천178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7타를 줄이며 합계 13언더파 131타로 장민정(18·퇴계원고)을 1타차로 따돌렸다.

올 시즌 드림투어에서 유일하게 2승을 올린 조윤지는 남지민(19)을 밀어내고 상금랭킹 1위 자리에 올랐다. 2개 대회만을 남겨 놓은 드림투어는 상금랭킹 3위까지 내내도 정규투어 전 경기 출전권을 준다. /연합뉴스



봄슬레이 대표팀 내달 美 전훈

'풀러닝 신화'에 도전장을 내민 봄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향한 험난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선수로 복귀한 강광배(강원도청) 전 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김정수, 송진호(이상 강원도청), 이진희(강릉대), 김동현(연세대), 육준성(국민대·이상 봅슬레이), 조인호(강원도청·스켈레톤) 등 7명의 '태극 썰매맨'들은 내달 7일부터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파크시티 경기장에서 2009-2010 시즌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전지훈련을 치른다.

/연합뉴스



신동열감독 '5년 27억'

삼성과 역대 사령탑 최고 몸값 재계약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5년간 지휘봉을 다시 맡긴 신동열 감독(사진)에게 역대 사령탑 최고 금액을 선불했다. 삼성은 29일 신 감독과 5년간 계약금 8억원, 연봉 3억8천만원 등 총 27억원에 재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신 감독은 연봉 4억원으로 현역 감독 중 최고액을 받은 김성근 SK 감독에는 못 미쳤으나 계약기간이 2년이나 길어 총액에서는 김 감독(3년간 2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2004년말 삼성과 5년간 계약금 5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15억원에 당시 최고 금액으로 계약했던 신 감독은 구단의 배려 속에 5년 만에 기폭을 다시 썼다.

사령탑 데뷔 첫해이던 2005년과 2006년 잇달아 한국시리즈를 제패한 신 감독은 2007년부터는 연봉이 3억5천만원까지 올라

추신수 프로파일 및 시즌 성적

출생 1982.7.13 (부산)
 출신 학교 부산고
 키 180cm
 몸무게 95kg
 주요 경력 2005~2006, 2008, 2009 시즌 메이저리그
 2006~2007 시즌 K리그
 2009 시즌 K리그

타율 0.303 | 홈런 19 | 타점 83개
 안타 172 | 도루 20개
 "한국인 메이저리그 첫 시즌 최다 홈런"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초 100타점 달성"

연도별 홈런수
 2005: 1
 2006: 3
 2007: 3
 2008: 14
 2009: 19

추신수 19호포!

이틀만에 홈런포 작렬... 20·20클럽 눈앞

'추추 트레이너'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이틀 만에 또 홈런을 쏘아 올렸다. 추신수는 29일(이하 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펼쳐진 미국 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경기에서 7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 홈런을 때렸다. 시즌 19호.

이날까지 20도루를 기록 중인 추신수는 이로써 남은 6경기에서 홈런 한 개만 더하면 한국인 메이저리거로는 처음으로 호타준족의 상징인 '20·20 클럽'(20홈런·20도루 이상)에 가입하게 된다.

지난 25일 디트로이트와 경기부터 최근 5경기에서 이틀 간격으로 하나씩 홈런을 치는 타격각각을 이어간다면 추신수가 올 시즌 '20·20'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우익수 겸 3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추신수는 0-3으로 뒤진 7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화이트삭스 선발투수 존 댁크스의 높은 포심 패스트볼(시속 145km)을 그대로 잡아당겨 우측 펜스를 넘겼다. 이날 클리블랜드의 첫 득점이자 유일한 타점이다.

앞서 1회 2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4회 2사후 댁크스의 바깥쪽 포심 패스트볼(시속 145km)을 밀어쳐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2루타를 만들었다.

하지만 후속 타자인 조니 페랄타가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추신수는 9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아웃됐다.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를 때린 추신수의 타율은 0.301에서 0.303으로 높아졌다. 타점은 83개로 늘었다.

2005년 메이저리그에서 뛰기 시작한 이후

올 시즌이 첫 풀타임 출장인 추신수는 시즌 타율도 무난히 3할대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지난 시즌 전반기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94경기에서 나와 14홈런에 타율 0.301을 쳤다.

클리블랜드는 화이트삭스 선발 투수 댁크스의 3피안타 1실점 완투에 마쳐 1-6으로 졌다. /연합뉴스